

스페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505천km ²	GDP (2011년도)	14,908 억 달러
인구 (2011년도)	46.10 백만명	1인당GDP (2011년도)	32,350 달러
정치 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Euro (EUR)
대외 정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율(U\$기준) (2011년도)	.72

- 스페인은 유럽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포르투갈, 안도라 및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두배에 해당하며 약 47 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스페인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에 따른 건설업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은행 부실채권 증가 및 금융부실의 심화로 스페인 은행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2012년 6월 25일, 스페인은 구제금융(EU)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동 자금은 금융권의 자본확충을 위해 쓰여질 예정임.
- 2011년 11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국민당(PP)이 좌파성향의 사회당(PSOE)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사회당은 경기침체 속에서 국정운영 미숙 및 긴축 재정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 불만이 증대된 결과 총선에서 패한 것으로 분석됨.
- 스페인은 1982년에 NATO에 가입했으며, 1986년 EU 및 2002년 유로존에 가입함.

II. 경제동향

1.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스페인 금융부문, 유동성 부족현상 지속

○ 스페인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부동산시장 거품붕괴에 따른 은행 부실채권 증가, 금융부실 심화 등으로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스페인 은행들은 ECB로부터 2012년 3월 한달 동안 2,276억 유로를 지원받는 등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유럽은행감독청(EBA)는 유럽 은행들에 대해 2012년 6월 말까지 핵심자기자본 비율(Core Tire 1 Capital Ratio)을 9% 이상 충족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스페인 은행은 최대 100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됨.

* 스페인 14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핵심자기자본비율 6%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페인 은행의 자본확충에 최소 62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형성

○ 스페인은 유럽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0년 기준 유럽경제권이 스페인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7%,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6%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 프랑스 및 독일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10% 이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스페인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수출대상국('10): 프랑스(18.3%), 독일(10.5%), 포르투갈(8.9%), 이탈리아(8.8%), 영국(6.2%)

* 주요 수입대상국('10): 독일(11.7%), 프랑스(10.7%), 중국(7.9%), 이탈리아(7.0%), 영국(4.5%), 네덜란드(4.5%)

□ 대외경쟁력 약화에 따른 제조업 기반 취약

- 스페인은 2000년 유로화 도입에 따른 환율의 불균형 조정기능 상실, 임금상승, 신흥시장국 부상에 따른 점유, 의복 및 가죽 등 전통적 수출 주력 업종의 사양화로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어 부동산 거품 붕괴이전까지 건설업,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 투자함.

* 주택 및 건설 부분은 2011년 기준 스페인 GDP의 16%, 관광업은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지역 평균(GDP의 17.4%) 보다 낮은 14.6%인 것으로 분석됨.

나. 성장 잠재력

□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시장 거품붕괴로 경제성장세 후퇴

- 스페인은 1997~2007년 평균 3.8%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가면서 세계 9위 경제대국(2008년 기준)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됨에 따라 2009~1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스페인의 현재 주택가격 2007년 고점 대비 약 27% 하락

- 내수위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의약품분야의 수출 증가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한 0.7%를 기록하였으나 고실업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투자심리 위축, 생산활동 감소 및 은행의 대출감소 등에 따라 201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둔화되는 등 금년에는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률: -3.7%(2009) → -0.1%(2010) → 0.7%(2011)

□ 글로벌 경기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8년 말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에 따른 스페인 은행부실로 2008년 이후 FDI 유입이 위축되었는데, 2008년에 667억 달러를 기록한 FDI 유입액이 2009~10년에는 각각 97억 달러, 412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 재정위기 여파지속으로 인한 투자신뢰도 하락에 따라 FDI 유입액은 2011년에도 전년보다 감소된 25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상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스페인은 2011년 45/183위에서 2012년 44/183위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상위권 평가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사업개시, 전력확보, 투자자보호 등의 평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다. 정책성과

□ 부실화된 은행권의 구조조정 추진에도 금융권의 부실여신 여전

-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은행 부실화가 가시화되자, 스페인 정부는 2009년 6월 은행구조조정기구(FROB)를 설립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함. 스페인 정부는 FROB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은행에 대해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하고 추가 자본확립이 어려운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의 비핵심 자산 매각, 운용규모 축소를 요구함.
- 스페인 정부는 2010년 5월 카하수르 저축은행을 국유화한데 이어 2012년 5월 부실은행인 방키아(2010년 12월 7개의 부실화된 저축은행 합병하여 설립)를 44.7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국유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합병 및 국유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함.
-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확충을 내용으로 2012년 2월, 5월 두차례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나 저축은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 한편, 무디스는 2012년 5월 17일 스페인 1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한데 이어, 6월 26일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권에 대한 정부 지원능력의 약화 및 은행의 부동산 사업 손실로 스페인의 28개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최대 4단계 강등함. 피치도 스페인 은행대출 부실을 경고하며 6월 13일 스페인 은행 18곳을 강등시키는 등 은행에 대한 국제기관의 평가도 부정적임.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

- 2000~04년 스페인의 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건설업 활황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금융위기 이전(2005~08년)까지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함.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1.2%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8.9%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금년 목표치인 5.3%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스페인은 국가권력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강화된 가운데 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의 전시적 지출에 따라 2011년 말 17개 지방정부 중 8개만이 중앙정부가 제시한 적자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스페인 전체 공공지출에서 17개의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이후 관광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 10%에서 2011년 3.5%까지 축소됨.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인해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에 필요한 소비재, 건설자재 등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 3월 긴축안 발표에도 국제금융시장은 회의적 반응

- 2011년 5월 긴축 정책안 발표에 이어 2012년 3월 30일 스페인 정부는 법인세 조정, 정부 지출 삭감, 공무원 임금 동결을 통해 총 273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의 긴축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GDP 대비 재정적자의 목표는 5.3%로 설정함.

-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소득세 인상, 정부지출 16.9% 삭감, 공무원 임금 동결, 공공부문 부동산투자 19.6% 감축, 조세회피 감시 강화 및 해외에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함.
- EIU 등 주요 기관들은 스페인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이며 2012년의 스페인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2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3%를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11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PP)의 승리로 정권교체

- 2011년 11월 20일에 실시된 스페인의 총선 결과,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당(PP)이 오랜 집권당이었던 좌파성향의 사회당(PSOE)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7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민당(PP)은 전체 의회의석 350석 중 186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반면, 사회당은 110석을 차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총선은 오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PSOE)의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으로 2012년 3월 예정되었던 총선을 2011년 11년로 압당겨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실업률 상승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지속되는 긴축정책실시에 따라 사회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간접세 인상, 긴축정책 및 노동개혁 등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기존 51%(1월)에서 45%로 하락함.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상존

○ 국가권력의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재정긴축계획 실행이 어려우며 스페인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1년 말 17개의 지방정부 중 8개만이 중앙정부가 제시한 적자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음.

- 금년 3월 25일 안달루시아 및 아스투리아스 주의 지방선거가 결과, 국민당이 승리하였으나 국민당이 다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1978년 헌법을 개정하여 17개 지방정부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빈발

○ 스페인 정부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중인 긴축정책 및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반정부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불안정이 초래됨.

- 2011년 5월 16일 강도 높은 공무원·공기업 급여 5% 삭감 및 임금 동결, 연금 지급액 동결, 육아 복지 수당 폐지, 해외 원조액 삭감 긴축안 발표에 반대하는 시위가 처음으로 일어난데 이어, 11월 13일 긴축정책으로 인한 의료, 교육 등 사회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 2012년 4월 29일에는 교육 예산 100억 유로와 보건 예산 70억 유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긴축안에 반대하여 스페인의 55개 도시에서 시민 4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5월 11일에도 스페인 전역에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노동개혁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및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초래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 및 관련 산업의 침체 및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여 2009년 11.3%를, 2011년 21.6%, 2012년 24.4%로 상승추세임.

* 실업률: 11.3%(2008) → 18.0%(2009) → 20.1%(2010) → 21.6%(2011) → 24.4%(2012)

- 특히, 건설 부문에서 저숙련 청년층이 대거 해고됨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51.1%를 기록하는 등 높은 실업률이 범죄의 증가나 폭동으로 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잠재됨.

3. 국제관계

□ EU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주는 대외정책 표방

- 스페인 정부는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EU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은행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EU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는 재정위기국 지원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스페인 정부의 외채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유사 국유화로 양국간 긴장 고조

- 스페인은 중남미 지역과 경제 및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2012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대 정유사인 YPF(스페인 기업 자본 57% 보유)를 국유화함에 따라 스페인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12년 6월 25일, 구제금융 공식 요청

- 2012년 6월 9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부실시중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소 400억 유로 이상 (최대 1,000억 유로 추산)을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으

며, 6월 25일 스페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제금융(EU)을 요청함. 구체적인 규모 및 세부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6월 28일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은행권 구제금융과 관련된 세부조건 등은 7월 9일 최종승인될 전망이다.

- 이번 구제금융은 그리스, 아일랜드가 받은 구제금융과 달리, 재정긴축 및 경제개혁 이행약속은 없으나 공적자금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개혁조건이 부과될 예정이다.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와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에서 제공되는 구제금융 자금은 스페인 정부가 운영중인 은행구조조정기구(FROB)을 통해 금융권의 자본확충을 위해 시중은행에 투입될 예정이며, 동 자금은 스페인 정부가 최종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스페인 정부채무는 GDP 대비 68.5%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

○ 스페인 GDP 대비 정부채무는 2007년 36.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68.5%를 기록하였으나 GDP 대비 정부채무가 100%가 넘는 재정위기 국가 뿐만 아니라 독일(88.9%), 프랑스(85.1%)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채무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임.

○ 한편, 스페인의 구제금융 수혜가 정부채무로 산정됨에 따라 2012년 GDP 대비 정부채무는 전년 보다 증가한 8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정부채무: 36.3%(2007) → 40.2%(2008) → 53.9%(2009) → 61.2%(2010) → 68.5%(2011) → 80.9%(2012)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스페인 정부채권 신용등급 평가추이

- S&P: AA('10.4월)→AA-('11.10월)→A('12.1월)→BBB+('12.4월)

- Moody's: Aa2('11.3월)→A1('11.10월)→A3('12.2월)→Baa3('12.6월)

- Fitch: AA+('11.3월)→AA-('11.10월)→A('12.1월)→BBB('12.6월)

- S&P는 2010년 4월 26일에 스페인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2011년 10월 13일에 AA-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2년 1월 13일에는 A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함. S&P는 2012년 4월 26일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악화, 자국 은행을 지원시 재정부담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로 두 단계 강등함.
- 무디스는 스페인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11년 3월 10일에 Aa1에서 Aa2로, 2011년 10월 18일에 A1로 하향조정한 이후 2012년 2월 13일 추가적으로 A3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함. 2012년 6월 12일 스페인이 최대 1천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다음날인 6월 13일에 스페인이 유럽재정안정 기금(EFSF) 등으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정부 부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디스는 스페인 신용등급을 Baa3로 3단계 강등하였으며, 이는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투자부적격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임.
- 피치는 2011년 3월 4일, 10월 7일에 스페인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각각 AAA에서 AA+으로, AA+에서 AA-로 각각 두 단계 하향조정함. 2012년 6월 7일 피치는 EU의 스페인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고조된 가운데,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이 스페인의 정부부채를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3단계 하락한 BBB로 강등함.

□스페인 재정위기 발발 이후 국채수익률 및 CDS 프리미엄은 급등 지속

- 2010년 3월 평균 3.9%를 기록한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지난해 하반기 유로존 위기로 2011년 10월 10일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11월 25일 6.69%를 기록하였음.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은행들에 1조 유로에 달하는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여 2012년 3월 초에는 4%대 까지 떨어졌으나 6월 11일 6.51%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6% 중후반대의 국채수익률을 기록함.
- 금년 6월 18일 스페인 중앙은행이 스페인 은행의 부실여신 비중이 8.72%로 1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스페인 국채수익률은 유로존 가입 이후 최고치인 7.16%를 기록함.
- 스페인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008년 9월 이전에는

30bp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09년에는 50~100bp 수준을 기록함. 2010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스페인 CDS 프리미엄은 2010년 11월 30일에는 367bp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6월 18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621bp를 기록함.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부보율 적용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50년 3월 17일 (북한과는미수교)

- 양국간 수교역사는 긴편이며, 문화, 과학 및 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스페인 주요협정체결현황

: 과학기술협력 기본협정('75), 문화협정('77),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범죄인인도조약, 경제협력협정 (이상 '94), 군사비밀보호협정('10)

□ 2010년 이후 스페인 교역규모 소폭 증가세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대 스페인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40% 급감한 2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말 대 스페인 교역규모가 3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경기침체 이전인 43억 달러 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 스페인: 우리나라의 38위 수출대상국, 41위 수입대상국(2011년 기준)

* 한국-스페인 교역 규모 추이

: 43.2억 달러(2008) → 26.2억 달러(2009) → 28.2억 달러(2010) → 30.2억달러(2011)

□ 대 스페인 직접투자 실적(2012년 3월말): 250건, 458백만 달러(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직접투자 실적은 2009년 114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 감소하여 2011년에는 48백만 달러를 기록함.
- 투자실적(연중): 16백만 달러(2008) → 114백만 달러(2009) → 56백만 달러(2010) → 48백만 달러(2011)

<표 2> 한·스페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1,737	1,858	1,857	기계, 자동차, 식료품, 제약품
수 입	876	955	1,162	기계장비, 연료, 화학제품
합 계	2,613	2,813	3,019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하에 신용팽창에 기초에 형성됐던 스페인의 부동산시장 거품이 붕괴됨에 따라 이는 은행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함. 스페인 정부는 부실은행 구제방안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부실은행에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일부 저축은행을 국유화했으며 추가적으로 부실화된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스페인 정부는 EU에 대해 구제금융을 요청함.
- 스페인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긴축안을 내놓았으나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세수기반 악화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및 국민들의 저항 등으로 단기간내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및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및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청년실업률이 50%에 이르는 등 고실업으로 인해 스페인의 사회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조사역 서은주 (☎02-3779-5712)

E-mail: seoeunchu@koreaexim.go.kr